

8-9세기 황해 해상 무역과 해상 실크로드의 관계

李 寶 民*

The Link-up of Trade on Huang Hai and Silk Route on Sea in 8-9th Century

Li, Bao-Min

- | | |
|------------------------------|---------------------------------|
| 〈목 | 차〉 |
| 一. 황해무역구와 해상 실크로드와의 경제·문화 교류 | 三. 황해무역구와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仲介港--揚州港 |
| 二. 동서양 상인들이 당나라에서의 활동 | |

중국의 당나라 전까지만 하여도 해상 실크로드의 東洋에서의 중점은 중국 남부의 연해항구, 특히는 廣州(광주)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8-9세기 전후에 이르러 黃海貿易區의 발전과 중국 동남연해 무역항구의 흥성으로 해상 실크로드와 黃海貿易區 간에는 많은 연계를 갖게 되었다. 그 영향력은 韓半島, 심지어는 더 멀리 일본열도까지 미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동서양의 경제·문화의 교류, 동서양 상인들이 당나라에서의 활동 및 당나라 중요한 해상 중계항의 지위 등 방면에 着眼하여 해상 실크로드와 황해무역구와의 관계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一. 황해무역구와 해상 실크로드와의 경제·문화 교류

황해무역구란 황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북방 연해지역과 한반도 및 일본열도가 포괄된 航海貿易 공간을 總稱하는 것이다. 황해무역구와 해상 실크로드의 내재적인 연관성의 존재여부를 논하자면 먼저 그들간에 경제 및 문화교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 中國 大連海事大學 副教授

이 論文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舊唐書·食貨志』, 『舊唐書·田神功傳』, 韓偉의 『海內外唐代金銀器萃編』(해내외당대금은기체편), 三秦出版社, 1989. 『南海絲綢之路文物圖集』, 제45-47면. 蘇萊曼·丹吉爾의 『中印游記』, 韓愈의 『送鄭尚書序』

(一) 경제교류

「삼국사기」 및 기타 일부 사료에 의하면 당나라에서 신라로 수출한 상품으로는: 彩素(채소), 錦彩(금채), 綾彩(릉채), 五色羅彩(오색라채), 端文錦(단문금), 絹(견), 帛(백)등 織物類와 錦袍(금포), 紫袍(자포), 綠袍(녹포), 紫羅綉袍(자라수포), 押金線綉羅裙衣(압금선수라금의), 金帶(금대), 銀帶(은대), 銀細帶(은세대), 錦細帶(금세대)등 衣服類, 그리고 金器(금기), 銀器(은기), 金銀細器物(금은세기물), 銀盃銀槿(은완은합)등 금속 工藝品類가 있었다. 신라에서 당나라로 수출한 물품으로는: 朝霞綢(조하주), 朝霞錦(조하금), 大花[(대화)小花(소화)], 魚牙錦(어아금), 魚牙綢(어아주), 三十升寧衫緞(삼십승녕삼단), 龍稍(용초), 布(포)등 각종 織物類와 金(금), 銀(은), 銅(동)등 금속류 및 金釵頭(금채두), 鷹金(銀)[응금은], 鐵子(족자), 鶴子金(銀)[요자금은], 鑲鷹鈴(루응령), 金花鷹(鶴子)[금화응(요자)], 塔鈴子(탑령자), 金(銀)鑲鷹尾筒(금은루응미통), 金銀鑲鶴子尾筒(금은루요자미통), 瑟瑟細金針筒(슬슬세금침통), 金花銀針筒(금화은침통), 針(침), 金銀佛像(금은불상)등 금속 工藝品類, 그리고 人蔘(인삼), 牛黃(우황), 茯苓(복령)등 藥材類 및 馬(마), 果下馬(과하마), 狗(구), 海豹皮(바다표범가죽), 擊鷹(鶴子)[격응요자]등 가죽과 모피류가 있었다. 中外 역사문헌의 기록 및 考古 발견¹⁾에서 알 수 있듯이 당나라에서 서방 국가로 수출한 주요 상품은: 絲綢(비단), 도자기, 동, 철, 사향, 大黃(대황)등이었고 서방국가(동남아와 남양의 국가를 포함하여)가 당나라로 수출한 물품은 香藥(향약)[乳香(유향), 蘇木(소목), 龍腦(용뇌), 胡椒(호초), 沉香(침향)], 서우뿔, 상아, 玳瑁(대모), 진주, 산호, 琥珀(호박), 棉布(면포), 榴璃(류리), 보석, 駝鳥(타조), 金銀器 등이 있었다.

이러한 교역상품중에서 두 종류의 상품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銅인데 동은 신라에서 당나라로 수출되는 중요한 물품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당

나라에서 서역으로 수출되는 상품 중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의 奇異한 寶貨와 향료의 대량 流入은 당나라 정부로 하여금 상응한 輸出物資의 결핍을 느끼게 하였고 또한 “매매와 교역에 있어서 중국 역대의 동전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중국 상인들이 지불한 동전을 배편으로 국내에 운송하였다. 때문에 페르시아만이 있는 屍羅夫(시라부)항에서도 漢字가 새겨져 있는 동전이 유통, 사용되었다²⁾. 이리하여 당나라는 동전이 모자라게 되자 부득이 강제조치를 취하여 동전의 수출을 저지하는 것으로 국내 동전이 궁핍한 상황을 면하고자 하였다. 『冊府元龜』에 적기를 “建中 원년(780년)에 칙령을 내려 은, 동, 철, 노비 등은 蕃市에서 교역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新唐書·食貨志』에서는 “貞元초에 駱谷散關에서는 행인들이 동전을 한 잎도 가져 나가지 못하게 禁(단속)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또 『舊唐書·憲宗記』를 보면 “(元和 4년 6월)辛丑에 동전이 嶺南(중국의 남부 광동등지역)을 지나는 것을 禁(단속)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동전의 수출을 엄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내의 동과 동전이 심하게 결핍한 상황을 감안하여 押新羅渤海兩蕃使는 開成 元年(836년)에 특히 조정에 공문을 올려 신라에서 곧 운송하여 오게 될 熟銅을 禁(단속)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³⁾. 이로부터 동은 금속류의 상품으로서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통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나라를 경유하여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서방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金銀器등 금속 공예품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볼만하다. 해외 국가들이 당나라로 수출하는 상품 중에서 金銀器는 인기가 큰 상품이다. 중국 고대 早期의 금속 그릇 製造術은 鑄造法을 사용하여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서역에서는 錘揲法(추설법, 두드려 만드는 법)을 사용하여 (금은기)제조술이 비교적 선진적이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당나라 이전의 것은 몇십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중 적지 않는 것이 수입품이다. 수입된

2) 蘇萊曼, 中印游記.

3) 『唐會要』卷 86.

경로는 육로도 있고 수로를 통해 들어 온 것도 있다. 당나라 때에 金銀器는 계속하여 해상 경로를 통하여 중국에 수입되었다. 예컨대 『舊唐書·田神功傳』에 기록하기를 上元(760년-761년)때 揚州의 大食과 페르시아 상인 수 천인이 살해되었다. 大歷 3년(768년) 3월, 田神功이 장안의 조정으로 올라갈 때 “金銀器 50件을 헌납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이로부터 당나라 때에 중국에 수입된 金銀器의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은기의 製造術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당나라가 신라로 수출하는 상품 중에 金銀器, 金銀細器, 銀盃銀槿(은완은합)등 금속 공예품이 있었다는 것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추정을 할 수 있다. 즉 신라의 사절단은 해외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물품 중에 좋은 金銀器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나라와의 朝貢貿易중에서 당나라 정부에 그러한 金銀器를 下賜할 것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금은기 등 그릇 製造術이 그리 발달하지 아니한 당나라와 신라의 朝貢貿易중에 金銀器라는 상품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해무역구와 해상 실크로드간에는 物資의 교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仲介무역 관계가 있다.

(二) 문화교류

양자의 문화교류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불교가 이들의 제일 좋은 매개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불교는 漢나라 때에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전해진 후 빠른 속도로 중국의 하나의 큰 종교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또한 중국을 통해 한반도로 전파되었다.

당나라에 와서 많은 당나라 僧人이 해상으로부터 수마트라와 인도, 스리랑카로 갔는데 義淨(의정)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기록한 것만도 60명이나 된다. 주목할 만한 것

은 당나라때 서역으로 가서 불교 공부를 한 많은 僧人중에 신라의 僧人 慧超⁴⁾도 있었는데 그는 水路로 인도에 갔다가 陸路로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東晉때의 法顯스님 다음으로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를 연결시킨 또 하나의 高僧이다. 또한 황해무역구와 해상 실크로드의 문화교류를 직접 연결시킨 최초의 신라인이다.

二. 동서양 상인들이 당나라에서의 활동

당나라는 8-9세기 때 동양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자연히 각국의 많은 상인들이 당나라에 와서 장사를 하였다. 동서양 상인들의 무역활동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황해무역구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계시켜 놓았다.

(一) 해상 실크로드 연안국가 상인들의 당나라에서의 활동 궤적

해상을 통하여 당나라에 온 외국 상인들은 대부분이 廣州와 揚州 두 곳에 거주하였다. 양주는 해상 실크로드와 황해무역구가 만나는 제일 적합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은 당나라때에 제일 부유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북, 동서 水運의 중심지였다. 그 당시 “揚州가 제일이고 두 번째는 益州이다”는 말이 민간에 나돌았다⁵⁾. 그때 양주에 거주하던 외국 상인들은 大食과 페르시아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다. 『新唐書·田神功傳』에 적기를 “神功이 병사를 거느리고 양주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의 주민들을 심하게 약탈하였는데 大食과 페르시아의 외국 상인중 죽은 자가 수 천명이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太平廣記』에는 “페르시아 상인은 양주를 근거지로 하여 다시 內地로 들어가 장사를 하였는데 후에 匯(하)에서 客死하였다.”⁶⁾라고 하였고 또 페르시아의 상인이 경영하던 페르시아邸(저)⁷⁾에

4) 慧超, 『往五天竺國傳』, 抄本の 殘本. 중국의 돈황에서 발견되었는데 현재 收藏한 곳은 未詳. 그 외 朴眞의 『中朝經濟文化交流史研究』, 遼寧人民出版社, 1984年版 참조.

5) 『容齋隨筆』, 卷五.

6) 『太平廣記』, 卷402.

대한 기록도 있다.

상술한 자료에서는 비록 서양의 상인이 신라 혹은 신라 상인과 직접적으로 무역을 하였다는 기록은 두고 있지 않지만 만약 신라의 상인이 양주와 그 부근에서의 활동을 고찰하여 본다면 그들이 某種의 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二) 신라 상인들의 在唐 활동

지금까지의 문헌 자료로 보아 신라인이 당나라에 거주한 지역들로는 歸義, 徐, 泗, 海, 登, 密, 靑, 淄, 萊, 兗, 金, 江, 臺, 楚, 揚, 池, 宣 등 19개의 州府에 거주하였다. 그 중에도 특히는 산둥반도, 江淮地域의 海濱과 운하 兩岸인 신라 상인과 교민들이 聚居하거나 무역 활동을 한 지역이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⁸⁾에 기재하기를 開成 4년(839년), 엔닌이 揚州에 머물 때, 해상 무역에 종사하는 신라 상인 王淸이 와서 그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 會昌 6년(846년), 일본 僧人 性海法師의 편지도 양주에 거주하는 신라 상인 王宗이 엔닌과 신라 譯語 金正南에게 전해 주었다. 楚州(지금의 江蘇省 淮安市)에서 엔닌이 일본의 조공사절단을 만나 귀국하려 하였을 때에도 사절단은 “바닷길(해로)을 잘 아는 신라인 60여명을 雇用하여 매 선박에 7인 혹은 6인 혹은 5인을 타게 하였다. 그리고 密州(지금의 산둥성 칭도 일대)에서 신라인 陳忠의 선박을 만났는데 그는 돛을 싣고 楚州로 가려고 하였다.”

많은 신라 상인중에서 제일 대표성이 있는 것은 바로 장보고의 貿易船隊이다. 그리고 揚州는 또한 장보고의 무역선대의 중요한 碇泊港의 하나였다.⁹⁾

위의 고찰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1. 양주는 해상 실크로드와 황해무역구가 연결되

는 제일 적합한 장소이다.

2. 양주에는 대량의 大食, 페르시아, 신라의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3. 양주는 동서양 상인들의 理想的인 무역장소였다.
4. 문헌에는 페르시아 혹은 신라의 상인들이 직접 交易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5. 동·서양 상인들이 한 지역에서 장사를 하였던 기에 피차간에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6. 이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의 銀器는 신라의 상인, 특히는 장보고 船隊로부터 인기가 좋았고, 쌍방은 간접적인 무역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양자간에 직접적인 연계는 없었을까? 아랍의 여행가이며 지리학자인 伊本·郭大貝(Ibnkhordadhbah, 830-912년)가 9세기 중엽에 쓴 명작 『道程及郡國志』(도정금군국지)¹⁰⁾에서는 중국의 무역 항구에 대해 남쪽에서부터 북으로 가면서 순서대로 기록하기를 日交州, 日廣州, 日泉州, 日揚日라하고 있고, 또한 유대 상인이 페르시아 만에서 海路로 중국과 신라에 간 실제 路程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들은 해상 실크로드와 황해무역구간에 某種의 직접적인 연계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고, 또한 해상 실크로드의 동쪽의 종점은 한반도의 신라까지 연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三. 황해무역구와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仲介港--揚州港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양주항이 황해무역구와 해상 실크로드간의 작용에 대해 再考察하고자 한다.

양주항은 장쑤성 양자강의 하류에 위치하여 있는데 당나라 때에는 양자강의 河口의 한쪽에 위치하여 있었다. 隋나라 때 남북대운하를 개통한 후,

7) 『太平廣記』, 卷 17.

8)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권1 내지 권4, 文海出版社有限公司, 1972年, 臺北.

9) 한·중 공동 연구과제, 『8-9세기 신라와 당 양국간의 해상 활동과 무역에 관한 연구』, 중국측 중간연구보고서, 1999. 1, 23면.

10) 沈福佛, 『論唐代對外貿易的四大海港』과 『東西文化交流史』, 上海人民出版社, 1985年 참조.

양주는 남으로는 양자강과 동해, 북으로는 淮河, 汴河, 북경, 洛陽을 연결하고, 西로는 내지로 통하는 水陸교통의 요충지였고 또한 四方의 화물 集散地로 되어 당시 중국 4대 무역항의 하나로 되었다. 『容齋隨筆』(용재수필) 卷5에는 “당나라때에 鹽鐵轉運使가 양주에 있었는데 判官이 수십 명에 달하였고, 상인들이 구름때같이 모여들었다. 때문에 민간에서는 양주가 제일이고 益州가 두 번째라는 말이 돌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도 양주는 그 당시 제일 부유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唐文宗은 『疾愈德音』 중에서 양주항을 매우 중요시하여 절도사에게 명하여 외국에서 온 “蕃客”(상인)들을 친절하게 배려함으로써 항해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통상적으로 볼 때, 양주항은 해상 실크로드의 여러 나라 상인들이 북상하여 무역을 하는 終點港이었고, 또한 신라의 상인들이 南下하여 장사를 하는 終點港이었다. 이로부터 양주항은 황해무역과 해상 실크로드를 伸介하는 큰 항구로 되었다. 양주항에서 출발한 선박은 동해를 가로질러 일본으로 직항할 수 있었고 또 淮水와 楚州를 거치거나 혹은 淮南 운하와 濟水를 거쳐 潁州에 이른 후 다시 한반도나 일본으로 항해 할 수 있었다. 그 외 양자강 하구에서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절강성과 복건성, 광둥성을 지나 남양이나 서역 쪽으로 항해할 수 있었다.

해로를 따라 당나라에 와서 무역을 하는 페르시아

나나 대식의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광주에서 上陸하였다. 그런 다음 혹은 광주에 남거나 혹은 북상하여 양주로 왔다. 광주에서 양주로 오는 교통노선은 광주에서 동북쪽으로 출발하여 處州, 洪州를 지나 江州에 이른 후 다시 수로로 양주까지 왔다.

이러한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들은 양주에 온 후 주요하게는 진주와 보석, 향료, 비단, 도자기 무역을 진행하였다. 육로나 해로가 모두 통하고 교통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양주항은 해상 실크로드가 縱的(내륙쪽)으로 발전하는데 좋은 여건을 마련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황해무역구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 작용을 하였다.

이상의 논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8-9세기 황해무역구와 해상 실크로드간에는 내재적인 연계가 있었다.
2. 해상 실크로드의 동서양 양쪽의 상품은 당나라를 매개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자의 국가로 유입되었다.
3. 유태 상인들이 해로를 이용하여 신라까지 감으로써 해상 실크로드의 동쪽 끝을 한반도의 신라까지 연장시켰다.
4. 양주항은 황해무역구와 해상 실크로드와의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중개항의 역할을 하였다.
5. 따라서 장보고를 대표 주자로 하는 신라인의 황해에서의 해상 무역활동은 해상 실크로드의 한 부분, 또는 필요한 補充이라고 할 수 있다.

